

朴大統領致辭요지

나는 昨年에 있었던 第1回 全國教育者大會에서 여러분에게 우리民族의 正統性和 確固한 國家觀에 基礎를 둔 教育 즉 「國籍있는 教育」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우리가 「國籍있는 教育」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過去와 現實을 올바르게 認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民族과 現實을 올바르게 보는 눈 즉 民族史觀의 形成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大韓民國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올바르게 認識하는 것이 곧 「國籍있는 教育」의 核心이라는 것을 強調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現實속에서 나는 國力培養의 基本은 重化學工業의 育成發展에 있으며 이것은 또한 國民의 科學化運動에 있다는 것을 明白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農村의 劃期的發展과 重化學工業의 育成 그리고 輸出의 大幅伸張이라는 3大目標을 내세우고 國力배양에邁進하고 있다.

나는 이 3大目標을 達成하는데 있어서는 科學과 技術의 振興이 무엇보다도 緊要하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科學과 技術의 뒷받침이 없이는 이 3大目標을 앞당겨 完遂할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科學」하면 흔히들 研究室과 精密한 高級機器를 聯想하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科學化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思考方式과 生活習性を 科學化해서 비록 簡單하고 初步的인 科學知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새마을 運動과 植木, 造林事業에 有用하게 活用할 줄 아는 그러한 國民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國民의 科學化運動이 다음과 같은 두개의 基本方向에서 서로 有機的인 聯關性을 맺고 強力히 推進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첫째는 科學을 앞세우고 科學을 日常生活에 活用할 줄 아는 科學의 生活風土를 造成하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는 科學 및 技術教育制度의 大幅的인 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制度의 改善이 理論爲主의 研究教育과 生産爲主의 技術教育이 서로 區分 把握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指摘하면서 몇가지 政策的 課題를 提示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工業高等學校를 大幅 增設해서 우리 國家가 要求하는 實技能을 着實하게 갖춘 誠實하고 資格있는 技術者를 豊富하게 養成해야겠다.

그리고 體力章制와 마찬가지로 技能章制를 實施해서 工業技術教育의 內實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國家考試制에 의한 資格制를 實施해서 職場에서 일하면서도 上級資格을 獲得할 수 있게 하고 學生의 경우는 理論研究部門으로 進學할 學生과 生産部門의 職場에 就業할 學生을 이 考試制에 의해서 適期에 區分하여 앞길을 保障해 줌으로써 精神의 乃至는 物質的 消費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工業技術分野에 있어서는 資格證所持者만이 就業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正當한 就業기회의 보장과 生産性의 提高를 期해야 할 것이다.

우리教育의 目的은 明白하다. 그 目的은 우리 國家가 필요로 하는 성실하고 能力있는 人材를 養成하는데 있다.

우리 大韓民國에서 자라서 우리 大韓民國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苗木을 기르는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올바른 民族史觀과 우리의 民族史의 正統性을 確固히 定立體得하고 그 위에 透徹한 國家觀과 自主性을 確立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國籍있는 教育의 基本이며 10月 維新이 志向하는바 理念의 基調인 것이다.